

뉴멕시코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7/8월호
2022



Valley of Dreams, Photo by Reymond Perez

COVER STORY
Page15

CONTENTS

뉴멕시코 교민여러분! 윤태자 : 2	신간소개, 시집: 고개드는 나 레베카김: 16
사진으로 보는 한인회 활동 : 3	왜 이스라엘을 축복 해야하나? 신경일: 17
2022년 가을학기 개강 등록 안내 : 4	바보로 사는 것도 실력이다 나정자 : 18
뉴멕시코 한국학교 교장 인사 이수신 : 5	영어이야기 21 / He is a man of
영김 하원위원, 아메리칸 드림을 되살리자 : 6	his words 이상목 : 20
Korean Language School, Fall Semester : 6	에베소(Ephesus), 사도 바울의 핵심
지난 5-6월의 지역사회 소식 : 7	선교지 유주손 : 22
국내외 주요 뉴스 : 8-11	슬로 여행 ~ 아이슬란드! 송은숙 : 24
한인이민역사 풀뿌리운동 주동완 : 12	교회 소식 : 26
코로나에 걸린 목사 김기천 : 13	뉴멕시코 한인교회 안내 : 27
리더십의 부재 이정길 : 14	한인업소안내 : 28-29
COVER STORY, '꿈의 계곡' 사진 R. Perez : 15	Letter to Editor/ 여러분의 생각? : 29

한인회 소식

뉴멕시코 교민 여러분

윤태자

제19대 뉴멕시코
한인회 회장

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덥다고 느낀 게 며칠 전인데 그 후에
내린 장맛비로 아침저녁 기온은 서늘
해졌습니다.

긴 가뭄에 단비 같은 장맛비가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요. 세상의 먼지가 다
씻긴 듯하고 나무와 꽃들은 한껏 양분
을 취하고 푸르러졌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렇게 활기차지길 바라봅니다
지난 두 달간의 한인회 소식과 앞으로
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7일에는 한국학교 봄학기 종강식
이 있었고 5월 21일에는 한국학교 현
직 교사 연수가 있었습니다

어버이회는 꾸준히 격주로 만나 친
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5월에는 윤태
자, 이명길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
니다. 6월에는 최희수 씨가 한인회에
서 어르신들께 식사 후원을 하였고 6
월 29일에는 최린 씨가 식사 후원을 하
십니다

한인회 소식으로는 5월 15일부터 18일
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미주 총연 임
시총회 합동대회가 있었습니다. 200여
명의 전직 현직 회장들이 모여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뉴멕시코에서
는 조규자 전 회
장님과 제가 준비
위원으로 한 부분
을 맡아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6월 25일에는 72
주년 6·25전쟁 기
념행사를 하였습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참전용
사님들 그리고 어

버이회 여러분들과 교민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주로스앤젤레스 대
한민국 총영사관과의 거리도 멀고 소
수의 한인이 살다 보니 미주류 정치계
와 영사관의 호응도가 낮을 수밖에 없
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한인회보다 참전용사
들과 돈독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
습니다. 행사를 위해 참전 용사분들
이 250불을 후원해 주셨고 박순삼 전
회장님과 신광순 전 회장님께서 각각
300불씩 후원해 주셨습니다.

한인회에서는 사무총장이 매달 참전용
사 미팅에 참여하고 있고 어버이회 회
원으로 등록하신 참전용사도 계십니
다. 행사의 의도는 72년 전 6·25전쟁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10만여 명의 미국의 젊은이가 부상 당
했으며 37,000여 명이 한국전쟁에서
사망했습니다. 3,000여 명이 실종되
어 가족들의 품에 돌아오지 못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지요. 그들은 대한민
국의 평화를 찾아주려고 피 흘렸고 희
생당했습니다. 그들의 피 흘림과 희생
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들은 이웃과 세
상에 도움을 주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

니다.

7월 7일부터 7월10일까지 한인회에서
는 뉴멕시코 한인 이민사를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한인들의 수는 적으나 Korean
American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보다
한인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 한인 이민사를 기
록으로 남기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여겼기에 한인회와 재
외동포재단의 후원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7월 10일 오후 5시에는 ‘풀뿌리 운동
과 기록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이
있습니다

8월 14일 오후 5시에는 8.15 광복절 행
사가 있습니다.

한인회 행사에 더욱 많은 한인이 참석
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멕시코 19대 한인회장
윤태자



한인회 소식

사진으로 보는 한인회 활동



한인회 6.25전쟁 기념행사



라스베가스 임시총회및 합동대회에서



합동대회에 참석하신 재외동포 이사장님과 함께



라스베가스 임시총회및 합동대회 기념사진

한국학교소식

뉴멕시코 한국학교

2022 가을학기 한글반 개강 및 등록안내

가을학기 한글반 개강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학생들이 한글학습의 혜택과 함께 한민족이라는 정체성과 한인학생들간의 유대감을 향상시키는 많은 기회를 제공할려고 합니다.

- 수업료: \$165.00 (둘째 \$150.00, 셋째부터는 무료)
- 등록비: \$30.00 (조기등록시 면제 2022년 7월 23일까지 등록시)
- 수업요일 및 시간: 유아 및 초등학생반: 매주 토요일 오전 9:10-12:30

중고등학생반: 추후 통지

성인반 1 (초급, 중급, 고급반) 매주 금요일 오후 5:30-7:30

성인반 2 (초급, 중급, 고급반) 매주 토요일 오후 3:30-5:30

- 한 학급당 최소인원이 5명입니다. (5명미만일 경우 통합 또는 취소됨)
- 수업기간: 8월 26일 부터 12월 3일 (APS 가을방학주와 추수감사절 주는 수업없음)
- 학교위치 및 주소: NM Korean Language School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문의 및 상담: 이수신 교장: 문자 및 전화: 505-515-4677

이메일: nmkoreanlanguage@gmail.com

Web: kaanm.com (홈페이지 상단 한국학교)

- 오리엔테이션 및 학급편성: 8월 20일 토요일

오전 10:00-10:50 (성인반)

오전 11:00-11:50 (유아, 초등, 중고등반)

- 수업료 및 등록비 납부방법: 등록신청서 작성후 체크나 머니오더 동봉후 우편으로 납부 (pay to the order of: KANM, 책 왼쪽하단에 학생이름 기재요망)

등록신청서는 학교에서 배부 혹은 KAANM.com 한국학교 에서 프린트 가능.

- 환불없음, 단 학급취소시 전액환불
- 수업은 대면으로 하고 온라인 수업도 개강합니다.
원하시는 수업란에 in-person 혹은 zoom에 표시하세요.
- 온라인 수업시에는 @gmail.com 이메일 사용필수

날짜	한글학교 태권도수업	시간
05-07-2022	No Class	1:15 ~ 2:15
05-14-2022	Class	1:15 ~ 2:15
05-21-2022	N/C	1:15 ~ 2:15
05-28-2022	C	1:15 ~ 2:15
06-04-2022	C	1:15 ~ 2:15
06-11-2022	C	1:15 ~ 2:15
06-18-2022	C	1:15 ~ 2:15
6-25-2022	N/C	1:15 ~ 2:15
07-02-2022	N/C	1:15 ~ 2:15
07-09-2022	N/C	1:15 ~ 2:15
07-16-2022	N/C	1:15 ~ 2:15
07-23-2022	N/C	1:15 ~ 2:15
07-30-2022	N/C	1:15 ~ 2:15
08-06-2022	C	1:15 ~ 2:15
08-13-2022	C	1:15 ~ 2:15
08-20-2022	C	1:15 ~ 2:15
08-27-2022	C	1:15 ~ 2:15

특별 활동 목록	
week	목록
1 주	가방 꾸미기
2 주	청사초롱
3 주	<추석>
4 주	버선 만들기
5 주	한국 지도 모자이크
6 주	가을 액자 만들기
7 주	Fall Break (No School)
8 주	주사위 만들기
9 주	태평소 만들기
10 주	<할로윈>
11 주	상모 만들기
12 주	포일 아트
13 주	<김치 축제>
14 주	Thanksgiving Day (No School)
15 주	가면 만들기

한국학교는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와 주정부 보건국의 지침을 따릅니다.

한국학교소식

뉴멕시코 한국학교 교장 인사

이수신

뉴멕시코 한국학교
교장



뉴멕시코 교민 및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무더운 여름 날씨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더 많은 부담을 가중시키는 여러가지 요인들, 변이 바이러스, 고물가, 고금리 등을 무난히 극복해 내시기를 응원합니다.

뉴멕시코 한국학교에서는 지난 5월 21일 한국어 교사 현지 연수를 재외동포 재단, 미주 한국학교 총 연합회, 뉴멕시코주 한인회의 후원으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빠르신 중에서도 연수에 참여해 주신 한국학교 선생님, 고등학생 자원 봉사자, 학부모님, 연수 강사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학교는 여름방학 동안에 고국방문, 여행 등으로 아등반 한글 수업은 없고 성인반만 개강하여 금요일과 토요일에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날 즈음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간단한 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UNM에 재학중인 한인계 풋볼선수인 Ian Shewell과 UNM 풋볼팀 코치를 특별 강사로 초청하여 아메리칸 풋볼에 관한 다양한 지식들, 풋볼의 역사, 게임 방법과 규칙등을 습득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려고 합니다. 초, 중, 고 학생들은 물론 풋볼에 관심있는 분들은 참석하실수 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성함과 연락처를 이메일 (nmkoreanlanguage@gmail.com) 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 및 일시는 8월 6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한인회관에서 하는걸로 잠정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추후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공지하겠습니다.

지금 한국학교에는 대한민국 교육부

와 재외동포 교육진흥재단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많은 교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아, 초, 중, 고 과정의 학생들이 이용할수 있는 한국어, 수학, 한국사 등의 한글교재와 교사 지침서 등이 구비되어 있으니 뉴멕시코 한국학교에 등록된 학생들은 물론 알버커키 외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에 방문하여 필요한 교재들을 무료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교재배부는 8월20일 한국학교 가을학기 오리엔테이션이 끝난후 정오부터 배부합니다. 한정된 수량이므로 선착순으로 배부합니다.

지난 봄학기부터 한국학교에서는 한글수업후에 우리 학생들에게 고유의 전통무술인 태권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년간 태권도를 수련해오신 Robbie Kay 사범님을 초빙하여 한국학교 등록학생들에게 무료로 지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태권도 수업은 현재 진행중이며 가을학기에도 계속합니다. 태권도 수업에 참여하고 싶은 미등록 학생들은 가을학기 과정을 조기에 등록하시고 무료로 수업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태권도 수업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15분부터 2시 15분까지 한국학교에서 1시간 동안 진행합니다. 봉사해주시는 Robbie Kay 사범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뉴멕시코 한국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주시는 한인회 관계자분들, 한국학교 선생님들과 고등학생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늘 부족한 부분이 있어

도 이해해 주시고 때로는 단체를 위해서 서로 다른 개인의 의견을 양보도 해주시는 학부모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멕시코 한국학교장 이수신
(사진: 교사 현지연수 행사)



Opinion



영 김 연방하원 의원, 아메리칸 드림을 되살리자

영 김(한국명 김영옥 · 59 · 공화당) 미 연방 하원 의원이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메리칸 드림’을 되살리자는 자신의 폭스뉴스 인터뷰 기사를 소개했다.

Fox News의 Opinion 칼럼에 기재된 그의 기고문 “This July 4th, let’s commit to restoring the American Dream”에서 자신이 정치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어린 소녀일 때 미국에 온 이민자로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경력을 살릴 수 있었으며, 또 Korean-American

으로는 처음으로 연방 하원의원에 선출돼 내 커뮤니티를 섬길 수 있었다”고 자신의 과거를 얘기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내 아이들이나 손자 손녀의 세대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까봐 두렵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최근의 미국 물가 상승, 경제, 에너지, 안보적 등 미국이 직면한 위기사항을 언급했다.

영 김 의원은 “이러한 위기에든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국가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나와 많은 다른 자랑스러운 미국인들이 우



리의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7월 4일, 우리 모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헌신합시다. 꿈은 살아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라는 결론으로 기고문을 마쳤다.

발췌 출처: Opinion By Rep. Young Kim | Fox News 7-3-2022

New Mexico Korean Language School 2022 Fall Semester Classes Information

We are excited to announce the Fall 2022 semester for Korean language classes. The New Mexico Korean Language School is offering Korean language courses in-person and over Zoom for all levels. Learn how to speak Korean, write in Hangul, and understand Korean culture and history in our fun, engaging classes.

1. Tuition: \$165.00 (Sibling Discount: 2nd student- \$150.00)
2. Registration Fee: \$30.00 (No fee for the early bird registration by July 23rd, 2022)

(1) Kindergarten and elementary students: Saturdays 9:10 AM-12:30 PM

(2) Middle/Highschool students: Saturdays: TBA

(3) Adults option 1: Beginners, intermediate, advanced- Fridays 5:30 PM-7:30 PM

(4) Adults option 2: Beginners, intermediate, advanced- Saturdays

3:30 PM-5:30 PM

If the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is less than 5, classes may be merged or canceled

If the registered number of students exceeds classroom capacity, classes will be added

4. Fall class schedule: August 26-December 3 (No classes the week of APS Fall break and Thanksgiving weekend)

5. School location and mailing address:

NM Korean Language School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ew Mexico 87112

6. Have questions or want to submit registration forms? Contact Sooshin Lee, the principal of the New Mexico Korean Language School.

Text or call: 505-515-4677
Email: nmkoreanlanguage@gmail.com

Website: kaanm.com (click language school at top banner)

7. Orientation and class formation will be held at the Korean Language School

August 20 on Sat. from 10:00 AM-10:50 AM for Adults classes

August 20 on Sat. from 11:00 AM-11:50 AM for kindergarten, elementary, middle/high school students

8. Registration and payment: Please fill out the form and mail it with payment (check or money order only; no cash)

9. No tuition refunds will be credited to future classes except for canceled classes.

10. Please check-in for in-person classes or sign in over Zoom. (Online students are required to use an @gmail account to sign into Zoom)

11. Adult students can choose option 1 (Fridays) or option 2 (Saturdays); please indicate your preference.

The Korean Language School will follow the guidelines of the CDC and the NMDOH

지역사회소식

한인 지역사회 소식

김춘정씨 김경숙 전 한인회 이사장 하와이로 이사

산타페에서 뉴멕시코주 교통국 교량설계 전문가로 근무한후 은퇴했던 김춘정 씨와 뉴멕시코 한인회의 2018년 문상귀 회장당시 이사장으로 봉사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한인교회를 위해 많은 봉사를 해온 김경숙 씨가 지난 6월21일 하와이로 이사를 떠났다. 두 부부는 오랫동안 정든 산타페와 알버커키의 한인 여러분과 만나서 석별의 정을 나누려고 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관계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급히 떠나게 되었음을 아쉬워 했다.

K Style Kitchen 한국식당 신장개업

새로운 한국식당을 찾으시는분, 또는 불고기나 Chicken요리를 좋아하시는 분에게 희소식이 있다. K Style Kitchen이란 이름으로 황경희씨가 지난 6월 한국식당을 개업한 사실이다. 주소는 6001 Winter Haven rd. NW Ste. G, ABQ로서 Coors/Montano 코너에 있는 소핑몰에 있다. 전화 (505)503-8699



박참술씨, UNM에서 수학박사학위 취득

뉴멕시코대학에서 한국 유학생 박참술씨가 지난 5월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15년 2월에 한국교원대학교 수학교육과에서 학사를 취득한뒤에 2015년도 미하여 가을학기부터 뉴멕시코 대학 (University of New Mexico, UNM)에서 수학을 전공하였다. UNM에서는 Matthew D. Blair 교수의 지도 아래에서 공부하였다.



박사논문의 내용을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쉽게 설명해달라고 부탁해서받은 설명이 아래와 같다. Compact Riemannian manifolds위에서 Laplace-Beltrami operator의 고유함수 (eigenfunction)가 고유값(eigenvalue)이 증가함에 따라 좁은 영역에서 얼마나 뭉치는지를 (concentration) 계산하는 작업이 그의 연구에 주된 내용이었다. 파동방정식(wave equation)이나 슈뢰딩거방정식 (Schrödinger equation)의 해법 (solution)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박참술 박사는 2022년 7월부터는 존스 홉킨스대학(Johns Hopkins University) 수학과에서 postdoc으로 취직되어 J.J. Sylvester Assistant Professor와 함께 연구생활을 시작할 예정이다.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에서 7년간 신앙생활을 해온 박참술 성도가 지난 6월 12일을 마지막 주일을 지키고 떠나게 되어 송별 인사를 했을때 새 직장을 얻게 된것을 축하하면서도 헤어짐을 교우 모두가 아쉬워 했다.



**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REGIONAL SEMINAR**

풀뿌리 운동과 기록의 힘

(Grass Roots Movement and Power of Records)

일시: 2022년 7월 10일 (일) 오후 5시

장소: 뉴멕시코 한인회관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강사: 주동완

학력: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졸업
- 한국학대학원 한국사학전공 석사 졸업
- City Univ. of New York at Graduate School, Sociology 박사과정 수료
- 한국 외대 대학원 글로벌 문화콘텐츠학과 전공 박사 졸업

경력:

- (현)코리안 리서치센터 원장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콘텐츠학부 부교수
- 캔즈대 재회 한인사회 연구소 연구원
-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전임교수



뉴멕시코주한인회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재외동포재단
OVERSEAS KOREANS FOUNDATION

국내외 뉴스

한국, 인공위성 발사체 개발에 성공

인공위성을 실어 올릴수 있는 발사체, 누리호가 두 번의 도전 끝에 발사에 성공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21일 발표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됐다.



(사진)발사체 누리호(KSLV-II)가 21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누리호는 발사 2분7초 뒤 1단, 3분53초 뒤 페어링(위성 보호 덮개), 4분34초 뒤 2단이 분리됐다. 남극 세종기지 안테나를 통해 성능검증위성의 초기 지상국 교신을 성공하고 위성의 위치를 확인했으며 이후 성능검증위성과 1.3톤의 위성 더미(가짜 위성)를 차례로 고도 700km에서 진입시켰다. 일주일 뒤에는 4개의 국내대학에서 제작한 초소형 큐브위성(꼬마 위성) 4기를 사출시켰다. 이번의 2차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발사하였으므로 3차 발사부터는 실용위성을 발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든, 한일 순방 마치고 귀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4일 오후 한국 및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지난해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첫 아시아 순방을 나선 것은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기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문제에 소홀하지 않고 중국 견제에 나섰다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방문에 앞서 지난 5월20~22일 한국을 먼저 찾고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 한미 정상회담, 오산 항공우주발전본부(KAOC) 방문 등의 일정을 마쳤다.



(사진)방한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함께 평택 삼성 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1일만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 중심이었던 한미 동맹을 경제와 공급망, 첨단기술, 기후변화 등의 분야까지 확대하는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22~24일 일본 방문에서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정상회의, 미일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 한국도 참여한 IPEF는 미국이 경제적 측면에서, 쿼드는 안보적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의체다.

미주총연... 총회에서 단결을 다짐

남북통일 만큼이나 어렵다던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가 통합하는 라스베가스 미주총연 임시총회 및 합동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통합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라는 의혹 속에 치뤄진 대회였지만 200명이 넘는 참가자와 32명의 준비위원들이 완벽에 가까운 준비로 대회는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공동회장 국승구 김병직, 이사장 서정일)가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간 라스베가스에서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다시는 분열과 소송의 흑역사를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2월 19일 콜로라도 덴버에서 열린 '통합총회'에서 통합합의안 인준으로 오랜 분열에 마침표를 찍은 미주총연은 이번에 열린 이사회 및 임시총회에서 분열을 막을 회칙개정 등을 재확인하고, 서정일 이사장이 차기 회장을 승계한다는 최초의 통합합의안도 정관 부칙에 넣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이 참여해 '코리안. 아름다운 민족이 되자'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미주총연 행사에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참여한 것은 7~8년간의 분열 시기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기사발췌: 월드코리아신문2022.05.20



NEWS

국내외 뉴스

전국노래자랑의 송해, 향년 95세로 별세



지난 34년간 KBS TV 프로그램 ‘전국 노래자랑’ 오프닝을 책임져 온 방송인 송해 씨가 8일 오전 서울 도곡동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95세다. 고향인 황해도 재령군에서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는 것이 소원이었던 고인은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윤석열 정부는 송씨에게 한국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기려 1등급 훈장인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한다고 밝혔다.

(6월 8일 BBC News Korea, 6월9일 디지털 조선일보에서 발췌)

우크라이나에 바이락타르 기증



이스탄불발 6월 27일 외신에 의하면 터키 방산업체인 바이카르 (Baykar) 사는 3대의 무인 항공기(UAV)를 우크라이나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락타르(Bayraktar) TB2 무인 항공기 여러대를 구입하기위해 우크라이나 TV 에서 2천만 달러를 모금하여 터키 방산업체인 Baykar에서 구입 하려 했으나 회사는 대금을 거부하고 대신 항공기 3대를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Baykar회사는 “그 대신 모금한 자금을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구호금으로 송금할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답했다.

터키(튀르키예)에서 제조한 Bayraktar TB2 드론 항공기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격퇴하기 위해 사용하는 핵심 전력 자산중 하나이었다.

TB2 드론을 설계한 Bayraktar 엔지니어는 미국에 유학하여 University of Pennsylvania와 MIT에서 석사과정을 마친후 귀국해서 Baykar 회사의 기술분야의 책임을 맡아 왔다. 현 터키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방송국에서는 2022년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하자 바이락타르라는 이름의 노래를 작곡해서 바이락타르 드론을 사랑하는 노래를 방송으로 3월1일부터 내보내면서 애국심을 북돋아 왔다고 한다.

“터키” 나라이름, “튀르키예” 로 변경

유엔은 지난 6월 초 터키의 외무장관이 발송한 국호 변경 요청의 서한을 접수했다고 스테판 두자릭 유엔(UN) 대변인이 발표했다. 대변인은 이어 “각국이 자유롭게 국호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이 문제는 유엔이 수락해야 할지 말지를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국호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이제 “터키” 나라의 새 이름은 “튀르키예(Türkiye)”로 된것이다.터키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국호를 ‘터키인의 땅’을 의미하는 튀르키예로 변경하자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호 변경 성명을 발표하면서 “튀르키예는 터키의 문화와 문명,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라고 밝혔다.

터키의 국영 방송인 TRT World는 올해 초에 발표한 기사에서 터키의 국호 변경의 이유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이런 설명을 했었다. 온라인에서 “터키”를 검색하면 터키 나라보다 북미에 서식하는 큰 새인 칠면조와 관련된 결과가 나오며 캠브리지 영어사전에서 “turkey”를 찾아보면 “실패한 것” 또는 “바보 또는 어리석은 사람”으로도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출처:VOA English June 6, Chosun.com 6월3일

미 텍사스 초등학교 서 총기 난사 사건

텍사스주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많은 아이가 목숨을 잃었다. 텍사스주 소도시 유밸디(Uvalde)에 있는 롭(Robb)초등학교에서 24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텍사스 공공안전부는 이번 사건으로 어린이 학생 19명과 교사 선생님2명 등 최소한 2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미 언론은 10년 전 발생했던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 총격 사건 이후 최악의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라고 전하고 있다.

NEWS

국내외 뉴스

바이든 • BTS 만남



VOA TV 리포트에서는 6월1일 보도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백악관 초청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는 아래와 같은 뉴스를 올렸다.

미국의 ‘아시아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제도 주민 유산의 달’ 마지막 날인 31일 세계적인 K팝 그룹 BTS가 백악관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면담에 앞서 백악관 브리핑장에 등장한 BTS 멤버들은 한 명씩 돌아가며 아시아계 증오범죄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BTS 리더인 RM은 “오늘 백악관에 초청돼 반아시아인 혐오 범죄, 아시아인의 포용과 다양성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라고 말했고 BTS 멤버인 슈가는 “나와 다르다고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평등은 시작된다고 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는 아시아 증오 범죄 퇴치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미국 대통령과 BTS의 면담은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BTS와

같은 세계적인 그룹이 미국뿐 아니라 그들의 고국인 한국 내 인권을 지원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2 뉴멕시코 산불

2022년에는 뉴멕시코에서 대규모 산불이 많이 발생했다. 4월과 5월에 걸친 Calf Canyon/Hermits Peak Fire는 600개 이상의 구조물을 파괴하고 뉴멕시코 역사상 가장 큰 산불 화재가 되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정부가 뉴멕시코 산불 대응 비용의 “100 %”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 6월 11일 산타페를 방문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뉴멕시코 주지사 미셸 루잔 그리섬과 뉴멕시코 국토안보부 장관 데이비드 다이.



상승하는 소비자 물가

미 노동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8.6% 급등해 1981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역사적인
나토 정상회의

조은정 기자 2022.7.1(VOA News발취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6월 30일 나토 정상회의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가 동맹을 강화하고 현재와 미래의 도전에 대응하는 ‘역사적인 회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협력국들의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서양과 태평양의 민주주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한데 모여 우리의 미래의 도전에 집중하고 중국 등의 도전으로부터 규범에 입각한 질서를 방어하는데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페인에 더 많은 군함을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와 독일에 방공 장비를 추가 배치하고 영국에 F-35 전투기를 추가 배치하며, NATO의 동부 전선을 강화하기 위해 폴란드에 제5군단 사령부를 상시 주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사무총장은 30일 정상회의를 마무리 하는 기자회견에서 “올해 정상회의는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동맹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결정들이 내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리는 억제와 방위에서 근본적인 변화에 합의했고 핀란드와 스웨덴을 초대해 동맹에 참여하게 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에 합의하고 새로운 전략개념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는 향후 10년간 목표를 담은 ‘전략개념’에서 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직접 언급하며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뒤엎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나토 동맹의 안보에 “가

NEWS

국내외 뉴스

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방어태세를 강화해 전방에 군사 장비와 물자를 더 비축하고, 신속 대응군(NFR)을 기존 4만명에서 30만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한국-나토 파트너십 체결 예정



(사진)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정상으로서의 처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30일 오후 스톡홀름에서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올 하반기 한국과 나토간 새로운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협력이 확대되고 나토 주재 한국 대표부 개설로 소통이 보다 더 제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톡홀름에서 나토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환영하며 인도 태평양 지역의 주요 파트너인 한국 정상 참석은 나토 차원에서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관계의 미래 비전을 포괄하는 ‘양자 프레임워크’(Bilateral Framework for Closer

Cooperation)을 채택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포괄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며 “양국이 안보 통상 외에 경제안보, 첨단기술, 원자력, 기후변화와 같은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대폭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세 가지 목표를 기대 이상으로 달성했다”며 가치 규범 연대, 신형안보 협력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꼽았습니다.

또 “한미일 정상회담을 포함해 나토 동맹국의 모든 연설에서 (국가의) 책임 있는 역할, 국제사회의 보편 타당한 가치와 규범, 합의를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관계를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언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2022.7.1
(VOA News 에서 발췌)

우, 루한시크주 함락

러시아는 루한시크주를 함락했다는 주장을 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전쟁발발 130일째인 7월3일 리시찬스크에서 모든 병력을 빼냈다고 발표했다



다. 우크라이나군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수적으로나 장비 면에서 우위를 점하는 상황에서 리시찬스크를 계속 방어하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철수 작업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다만 전술적 후퇴일 뿐이라면서 신형·장사정 무기를 확보하는 등 준비가 되는 대로 탈환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VOA News발췌기사)

러시아군, 쇼핑센터 폭격



러시아군이 6월27일 우크라이나 중부 폴타바 주 크레멘추크의 대형 쇼핑센터에 미사일 공격을 단행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사건 직후 현장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피격 당시 현장에 1천명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이번 미사일 공격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의 소집을 요청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이날(27일) 러시아군의 쇼핑센터 공격을 규탄했다.

이날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G7 정상회의의 이틀째 일정 중 공동성명을 통해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관계자들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우리(G7)는 이 잔인한 공격의 무고한 피해자를 애도하며 우크라이나와 단결하겠다”고 밝혔다.

Opinion

뉴멕시코한인회의 ‘한인이민역사’ 풀뿌리 운동

주동완

코리안리서치센터
원장

미국 내 한인들은 1992년 발생한 4.29 LA폭동 이후 한인들의 정치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민의 역사가 깊지 않은 재미한인들은 정치력 신장을 위한 방법으로 풀뿌리 운동을 전개해왔다. 이 운동은 한인들도 미국 주류 정치에 관심을 갖고, 우선 내가 살고 있는 우리 타운 정치에서부터 직접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풀뿌리 운동의 첫 번째 단계는 한인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 정치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다. 둘째 단계는 지역 정치인들과의 정치적 모임, 예를 들면 타운 홀 미팅 같은 것에 적극 참여하여 한인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셋째 단계는 한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지역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 후원도 하고 표를 몰아주어 선출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단계는 한인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고 가능하면 한인 대표자를 뽑는 것이다. 즉, 한인 대표자 선출이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한 풀뿌리 운동의 궁극적 목적이다. 지난 30년 간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한 풀뿌리 운동의 결과 현재 4명의 미 연방하원의원을 비롯하여 50여 명의 선출직 공무원들이 활동 중이다.

뉴멕시코한인회(회장 윤태자)가 이러한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한 풀뿌리 운동에 관심을 갖고, 지난 수년 간

한인회의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왜냐하면 뉴멕시코주 한인들의 여건을 보면 이러한 풀뿌리 운동이 쉽지 않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뉴멕시코주의 전체 면적은 315,194 km²로 한반도의 1.4배이고 남한의 3.1배 이상 되는, 미국에서 알래스카, 텍사스, 캘리포니아, 몬타나주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큰 주다. 또 뉴멕시코주의 인구는 2020년 현재 2백1십만 명으로 미국 50개 중에서 17번째지만 인구밀도는 45번째로 낮다. 뉴멕시코의 주청은 산타페에 있지만 가장 큰 도시는 엘버커키로 인구는 56만 명이다.

LA총영사관에서 파악한 바로 뉴멕시코주의 한인들은 주로 엘버커키에 모여 살고 있으며 대략 4천8백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뉴멕시코주 한인은 주 전체 인구의 0.2%에 해당하고, 엘버커키 인구의 0.8%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뉴멕시코주 한인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한인들이 어느 한 지역에 집중해서 거주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인구집중 정도가 중요한 관건인 풀뿌리 운동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멕시코한인회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한인들의 풀뿌리 운동을 해왔다. 즉, 당장의 한인 정

치인 배출보다는 한인 2세들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정치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뉴멕시코한인회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정체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미한인의 이민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왔다.

뉴멕시코한인회는 그동안 3회에 걸친 풀뿌리 운동과 관련한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통해 이러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왔으며, 이민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실천하기 위해 오는 7월초에 ‘뉴멕시코 한인이민사 디지털 기록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뉴멕시코한인회의 회원 및 지역 한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뉴멕시코 한인 이민사를 발굴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뉴멕시코주 한인이민사 디지털 아카이브는 일반에 공개되어 주류 사회에 뉴멕시코주 한인들의 이민역사를 알리고 자라나는 한인 2세대에게는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기초 교육 자료가 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한인이민사 디지털 아카이브는 한인들의 정치력을 향상시켜주는 풀뿌리 운동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에 뉴멕시코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본 프로젝트 참여 문의와 신청은 뉴멕시코한인회로 하시기 바랍니다.〉

칼럼

코로나에 걸린 목사



김기천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지난 달 오월 마지막 주간 금요일이었습니다. 날씨가 몹시 더웠지만 밖에 치워야 할 것들이 꽤 있어서 땀별 아래서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끝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약간 무리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몸에 열이 났습니다. 목소리도 약간 바뀌었지요. 옛날 와싱턴 디시에 살 때에 더위를 먹었던 때와 증상과 비슷해서 약간 더위 먹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잠을 자고 나면 회복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토요 새벽예배를 인도할 때에는 목소리가 완전히 내려앉아 굵은 베이스음만 나왔지요. 몸이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일상적으로 친교실에서 교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교제도 마다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특별히 아픈 것도 없고 열만 조금 있었지요. 아무래도 느낌은 안 좋았습니다. 집에 와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코로나 테스트기로 검사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건강한 사람은 줄이 하나만 나오고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두 줄이 나옵니다. 내심 한 줄만 기대했는데 희미하게 다른 한 줄이 보였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그것도 코로나에 감염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심한 증상이 없었기에 주일에 맡은 일들을 다 감당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급하게 영어예배는 샘 장로님께 한어 예배는 한 전도사님께 부탁을 하고 집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난생처음 인터넷으로 드리는 주일예배였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먼저 옷을 갈아입고 집에서 가장 큰 화면을 켜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부탁드렸지만 한 전도사님께서 예배를 은혜스럽게 잘 인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부터 열이 오르면서 몸살로 몹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감기 증상과 같아서 이후 이틀 동안 진통제나 감기약을 먹으면서 증상을 이겨냈습니다.

화요일이 지나면서 몸은 많이 회복되기 시작하였지요. 코로나 검사를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약국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금요일(6월 3일)로 예약을 했습니다. 금요일 검사를 하고 음성 결과가 나오면 오는 주일에 교회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국에서 검사 결과가 그 다음 주에나 나온다고 해서 결국 주일에도 교회를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몸은 괜찮은 것 같지만 바이러스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교인들에게 전염될 수도 있기에 6월 첫 주일도 집에서 예배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주일 설교는 집에서 녹화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경화 장로님께서 사회를 보시고 설교시간에만 영상을 틀었습니다.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나자 교회로 가서 교인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요. 왜냐하면 몸은 완전히 회복된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목사의 빈자리를 채워주신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기간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 새벽 예배를 위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이었지요. 제가 교회를 갈 수 없었기에 영상을 만들어 놓으면 교회에서 새벽예배시간에 황경희 집사님께서 영상을 올려주셨습니다. 새벽예배에 부른 찬송가는 정세정 집사님께서 녹음해서 보내주셨지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방 벽에 초록색 커튼을 쳐놓고 카메라를 설치한 후 혼자서 컴퓨터를 조작하면서 녹화를 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찬송가를 켜고 반주 소리에 맞추어서 찬송을 부르고 끝나면 정지시키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실수를 해서 같은 것을 여러 번 녹화를 해야 할 때도 있었지요. 녹화를 한 다음에는 약간의 편집 과정을 거쳐서 인터넷에 올려놓았습니다. 인터넷에 올려놓은 영상을 다시 보면서 불안정한 음성 때문에 다시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혼자서 기계를 만지면서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하는 일이란 저에겐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기도와 염려해주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수필

리더십의 부재



이정길

수필가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공업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 구조 전체의 산업 양식이나 시스템을 세분하여 편성하는 바람에 책임자로서 지도적 입장에서 있는 사람의 수가 전에 없이 많아졌다. 조그마한 부서의 책임자 일지라도 회사나 기업에서 중요한 사람이어서 책임감을 느끼며 임무를 수행한다. 맡은 사무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있다. 올바른 판단력을 지니고 언행이 일치하도록 노력한다. 자기 회사의 목표와 비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구성원들을 신뢰하여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면서 상황에 따라 역할 및 관리 방법을 개선한다. 아울러 스스로를 평가하는 능력도 갖춘다.

연공 서열에 따라 지위가 올라가는 사람들과는 달리 대중의 지지를 받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거의가 정치성이 농후한 사람들이거나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려는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다. 선거에 의하여 뽑히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해서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인 능력이나 통솔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있으나 마나 한 선거 제도로 자리를 꿰차는 공산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은 체면도 없고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으며, 자리를 오래 유지하거나 욕심을 채우기에만 급급하다. 이미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 버린 리더십의 결여를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현실이다.

지금까지 발생한 큰 유행병들은 대

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먼 곳에서 한정적으로 발생했다. 세계적 유행병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다 개발도상국들의 풍습이 초래하는 질병이어서 그 나라 사람들의 일로 치부해 버리고는 했다. 그러한 경우를 여러 번 겪어 유행병을 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병의 위협에 둔감해졌다.

하지만 약 30년 전인 1990년대 초에 '신생 바이러스' emerging virus라는 단어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보이지 않는 곳, 숨겨진 곳, 확실치 않은 곳에 있던 바이러스가 눈에 띄고 주의를 끄는 곳으로 나올 가능성을 예고했던 것이다. 미생물학자들은 기후의 변화, 대규모의 도시화, 바이러스의 저장고라고 할 수 있는 삼림 지대에 서식하는 동물과 사람의 근접 상태 등이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을 유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례를 벗어나는 큰 치명상을 사람에게 입히는 그런 바이러스는 세계화, 융이해진 국제간의 비행기 여행, 기아나 전쟁으로 발생하는 난민의 이동 때문에 아주 빨리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다고 했다.

이제까지 들어 본 적이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질병이 2020년에 발생하여 전 세계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 주었다. 싱가포르, 대만, 홍콩, 뉴질랜드 등 몇 안 되는 나라에서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재앙을 면했다. 막대한 경

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그 지도자들은 건전한 판단력과 식견으로 피해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지도자들의 리더십 부재로 국민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들은 전염병의 국내 침입이나 국내에서의 유행을 막는 데에 실패했다. 환자나 보균자의 조기 발견·격리·조치 등을 소홀히 취급한 결과였다. 리더십의 결여가 경제적 및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무시하면서 오히려 재앙을 키웠다. 그들이 과학이나 진실에 역행하는 행동만 하지 않았으면 상황은 훨씬 나았을 것이다.

중국의 공산당 지도자들은 초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질병의 발생을 한동안 은폐하고, 대응하는 데에도 느장을 부렸다. 그래서 우한의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던 것이다. 의료계의 전문가들은 공산주의 독재가 결정적인 시기에 진실을 감추고 뉴스를 억압하는 바람에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우세를 떨칠 시간을 허용했다고 역설한다. 우한에서 발생한 질병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막았더라면 유행병은 한정된 지역의 문제로 끝났으리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지도자는 자기 나라에는 COVID-19 확진자가 전무하다고 한결 같이 주장하다가, 끝내는 방역 단계를 초특급으로 격상하는가 하면 각종의 비상식적인 조치들을 남발하고 있다. 국제 비정부 기구와 일부 유럽 국가에

<16 페이지로 계속>

COVER STORY

'꿈의 계곡' 사진

Raymond Perez

Photographer Raymond Perez has been into photography since High School and enjoys landscape photography best. He and his wife, Hye Suk, have traveled through 13 countries in Europe as well as Korea, Japan,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taking pictures of many beautiful places.

Ray and Hye Suk's visited NM to see long-time friends, Ok Sun and Mija who helped bring them together 33yrs ago. The trip to New Mexico from Maryland gave them an opportunity to capture the unique landscapes of Hoodoos, and the Bisti Badlands was the perfect place to find them. The alien nature of the landscape intrigued his creativity to capture and present his experience and share his view as seen through his eyes.

While in the Valley of Dreams, he was able to fly his drone to capture the sight from a whole new perspective...from the air. The aerial shots showed the grand nature of the area and how fascinating these structures look from above. He was able to take many timeless pictures and compile a short video of the trip for all his friends to treasure for a long time.

Ray Perez

Email: Rayperez13@gmail.com

사진작가 Raymond Perez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진에 취미를 갖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풍경 사진 찍기를 좋아했다. 그는 그의 아내 (김혜숙)와 함께 한국, 일본, 필리핀, 태국 등을 포함하여 유럽 13개국을 여행하며 여러 아름다운 곳을 사진에 담았다.

메릴랜드에 살고 있었던 레이와 혜숙 부부는 33년전에 친구 김옥선씨와 이미자씨를 만나기 위해 뉴멕시코를 찾아 왔었는데 뉴멕시코로의 여행은 그에게 Hoodoos의 독특한 풍경을 포착하는 기회를 주었다. 비스티 뱀랜드 (Bisti Badlands)가 바로 이런 경치를 볼 수 있는 완벽한 장소였다. 외계 세계같은 신비로운 풍경은 그의 창의성에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서 이 곳 경치를 사진에 담게했고 그의 예리한 눈을 통해 본 그의 이미지를 여러사람과 공유하게 해주었다.

꿈의 계곡 (Valley of Dreams)에 가서 그는 드론을 띄워 비행체의 위치, 즉 공중에서 내려보는 경치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공중에서 찍은 사진은 이 지역의 웅장함과 이 지형을 위에서 내려다 볼때 얼마나 매혹적인지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는 시간이 정지한듯한 많은 풍경 사진을 찍어 짧막한 비디오를 다수 편집해서 그의 친구들이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자료제공 : 레이 페레즈(Ray Perez)

(사진설명 : 레이 페레즈씨와 김혜숙씨 내외(위사진), De-Na-Ziin 의 Valley of Dreams에서 찍은 사진들과 촬영에 사용했던 드론(가장 아래))



신간 소개

시집: The Integrity 고개드는 나

저자: SanU Rebecca Braverman

뉴멕시코 알버커키 한인이셨고 김영신 전 한인회장의 언니되시는 레베카 김영임 목사가 시집을 Amazon.com을 통해 출판했다.

목사이시기도 한 레베카씨는 2015년 뉴멕시코 한국학교 교장으로 봉사하셨고 현재 남부뉴저지 통합한국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으며 뉴저지 체리힐 장로교회 협력 사역자이시다. 필명으로 '산유'를 쓰고 계신 레베카 김 목사는 시집 'The Integrity 고개드는 나'를 지난 6월에 펴냈다. 작가는 2019년 '문학미디어'에 '고향'외 4편의 시로 신인 문학상을 받았고 미주크리스찬 문인협회에서 2020년 '죽음과 시작'이란 글로 수필 신인상을 받았다.



Book Signing하고 있는 저자 레베카

시집의 시작 페이지는 DEDICATION으로 시작 되는데 이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DEDICATION>

삶에 한 획을 그리는데
모두가 함께 했습니다.

사랑이 들어왔고,
희망이 노래로 화답하며
격려의 두드림이 한발 두발 던
게 했습니다
반갑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지만 '고개 드는 나' 시집
올려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집에 수록된 첫번째 시를 아래에 소개한다.



<가슴앓이>

그대가 놓고 간 가을

낙엽 뒹구는 소리에
문 열어 봅니다

낙엽 붉어지는 색깔에
그대 마음 훑쳐 봅니다

바람 쫓아 세월 쫓아
햇빛은 구름에 가리어
하늘조차 볼 수 없는데

천 가지 만 가지 색깔로
휘몰아치는 가슴은
붉게 쌓입니다

<리더십의 부재>

14 페이지에서

백신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국들이 공여한 자금으로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 COVAX Facility에 구매 신청서를 제출하고, 여러 유럽 국가들의 대사관에 백신 확보 방안을 문의한다.

정치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다. 국

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위기 관리 능력도 없는데다가 올바르게 사리를 판단하고 시비를 가릴 줄도 모르는 자들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백성들에게는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한 법인데...

놀라운 전염성과 이례적으로 큰 치명상을 입히는 코로나바이러스가 퍼져온 세상이 상상도 못했던 재앙을 당했

다. 팬데믹이 시작된지 1년 4개월 만에 전 세계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고, 미국에서는 600,000명이 목숨을 잃었다. 나는 유행병이 진행되는 과정을 일일이 보고 들으면서, 지도자라는 자들의 행태를 이해하기 힘들었다.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지사가 마스크의 착용도 의무화하지 않았다. 앞으로 후세를 가르칠 때는 반드시 “애들아, 이 세상을 움직이는 자들이 얼마나 시한 자들인가 똑똑히 기억해 두어라.” 하고 일러야 할 것 같다.

선교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하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영화 한 편을 소개합니다. 1913 년도 제작되고 7개의 academy 상을 받은 바 있는 Spielberg 감독의 Schindler's list입니다. Schindler는 독일 나치 당원으로 Holocaust 때 전쟁물자를 공급하는 사업가로 큰 공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많은 유대인을 채용하여 Hitler 앞잡이의 전쟁광으로 등장하지만, 유럽의 greatest humanitarian이 되는 감동적인 전쟁 영화입니다.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폴란드의 Auschwitz 로 (전쟁 난민수용소) 가는 죽음의 행렬 속에서 5살짜리 빨간 coat를 입은 소녀가 등장합니다. Oskar Schindler는 그것을 보고 충격받고 경악합니다. 그 소녀를 다시 보고 그는 오열하며 따라가는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I didn't do it enough 하며 독백합니다. 한 유대인이 답변합니다 사장님 ! 사장님은 천2백명의 유대인을 구출했습니다. You are a wonderful humanitarian 하며 그를 칭찬합니다. 아닐세, 내 자동차를 팔면 10명 더 구출할 수 있고 내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의 금배지를 팔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텐데 하며 유대인들과 열싸안고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 경전인 Talmud를 인용합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entire world.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Remnant)에 대한 바울 서신입니다. 이스라엘은 버림당했는가? 여기에 대해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운 남은 자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혈연이나 민족적인 테두리로 구원을 청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그들이 거부(reject)하므로 복음이 이방 나라를 향했다. 그러

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구원의 기회는 만민에게 공평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51절에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Listen, I tell you a mystery; We will not all sleep, but we will all be changed. 이스라엘에 관하여서는 6가지의 신비로운 비밀 (mystery)이 있다고 어느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1) 1922년에 현대 히브리어가 탄생 (2) Holocaust에 6 백만 유대인이 대량 학살 (genocide) 되었는데도 7백 30만이 살아났다. (3)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국가 탄생. (4) 1967년에 6일 전쟁으로 예루살렘을 회복했다. (5) 예수 믿는 유대인이 이스라엘 탄생 시 수백명에 불과했는데 70년 후에는 4만여 명이 됐다. (6) 알리야(Aliyah) 운동이 1882년에 시작됐다. Aliyah 는 히브리어로서 (a) 위로 올라감 (b)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 (c) 하늘 계단, 사닥다리를 의미합니다. 1992 년 소련 연방이 붕괴 되었을 때 소련에 사는 1백 5십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5만 유대인들이 Aliyah 하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인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자를 모으시리니”라고 했으며 시편 122편 6절에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180여 개 나라중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 (support)하고 축복하는 나라는 미국과 대한민국 두 나라임을 알고 계십니

신경일

목사

(전)UNM병원Chaplain



까? 이스라엘을 축복 하면 우리 개인이 축복 받고 교회가 축복 받고 나라가 축복 받는것은 하나님 의 명령이요, 언약의 성취인것 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 하면 우리 개인이 축복받고 교회가 축복받고 나라가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15년 전에 온누리 교회 목사님이신 하용조 목사님이 최초로 이스라엘 선교와 사역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지하실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하셨지만 수년 내에 대형 교회로 성장하신 것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기 때문으로도 생각합니다. 끝으로 미국의 시인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H.W. Longellow)의 인생 찬가를 소개하며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살아가는 우리 교포들에게 큰 용기를 불어넣기를 기도합니다. And our heart, though stout and brave, Still, like muffled drums, are beating Funeral marches to the grave. In the world's broad field of battle, In the bivouac of life, Be not like dumb, driven cattle! Be a hero in the strife! 우리의 심장은 튼튼하고 용감하지만 지금 이순간에도 낮은 북소리처럼 무덤으로 가는 장송곡을 울리고 있구나 인생이라는 드넓은 싸움터에서 노상에서 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말 못 하는 쫓기는 짐승같이 되지 말고 싸움에 뛰어드는 영웅이 되라 Heart within, and God overhead! 안에는 마음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수필

바보로 사는 것도 실력이다

나정자

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사모
/ 수필가

착한 마음도 실력이다
욕심부리지 않는 것도 실력이다
서두르지 않는 것도 실력이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도
실력이다
일의 요점을 아는 것도 실력이다
거짓말 안 하는 것도 실력이다
누가 말할 때 잘 듣는 것도 실력이다
자랑하지 않는 것도 실력이다
술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는 것도
실력이다
집안을 어지럽히지 않는 것도
실력이다
버릴 건 버릴 줄 아는 것도 실력이다
먼저 인사 하는 것도 실력이다
남의 말 절대 안 하는 것도 실력이다
있다고 교만하지 않는 것도 실력이다
없다고 비굴하지 않는 것도 실력이다
잘 때 쉬는 것도 실력이다
잠 잘 자는 것도 실력이다
반찬 투정 안 하는 것도 실력이다
시간 약속 잘 지키는 것도 실력이다
어깨펴고 가는 것도 실력이다
잘 웃는 것도 실력이다
명 때리는 것도 실력이다
효도도 실력이다

몇주 전 일간지에 실렸던 것으로,
맨하탄에 사는 강익중 이란 화가가 쓴
'23가지 실력' 이란 시의 전문입니다.

사전에서 찾아보니 '실력' 이란
실제의 역량 즉 예를 들면 “영어
실력이 뛰어나다” 등으로 실력이

좋다, 나쁘다 로, 또는 있다 없다
한마디로 듣는 즉시 금방 사람의
마음을 기분 좋게, 혹은 나쁘게
갈라놓는 실력있는 말입니다.

이 화가가 내 세운 실력 속에 과연
나의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이 23
가지중 내 실력은 과연 몇가지나
될까? 웬지 이 화가가 꼽은 실력보다
과연 더 뽑아 세울만 한 실력이 있지
싶는데?...
중얼거리며 나름대로 하나씩 짚어
보던 참이었는데.

지난 주 6월10일부터 12일까지
뉴저지 한인 교회협의회 주최 2022
년도 호산나부흥회가 “그리스도인
답게” 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오랫만에 열린 연합집회 였습니다.

첫날 강단에 서신 강사 목사님께서는
질문으로 첫시간 열음을 깨시는
것이었습니다.
“캐나다에는 천불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이 지폐를 아직 어린
아기한테 주면 그 아기는 그 돈을
과연 어떻게 할까요? 상상력으로
답해 보세요.”

가치를 모르니 찢어 버리거나 입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아무 관심이 없으니
그냥 놔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쉬운 답이 이번에 우리에게 던져질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이와같이 쏟아지는
은혜를 놓쳐버리는 격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가다가 혹시 구덩이에 빠져도
분명 형통하는 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지켜
지기까지는 430년이 걸렸던 걸
기억하시지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passing by의
삶이 아닙니다. “때가 차매” 창41:14
처럼 바로로 하여금 풀이할 수 없는
꿈을 꾸게 하셔서 급히 요셉을 옥에서
불러 내야 했듯이, 단10:12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검비하기로 결심하던 첫 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가 일러주시듯 때가 찰때 까지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삶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부족한 내
뜻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내가 온전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였습니다.

23가지 실력에 비교될 수 없는 큰
실력 하나를 팡!
—하나님을 의지함이 실력이다.

또 질문 이었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아기를 움켜려

할때 엄마들은 어떻게 하나요?
엄마들만 대답하세요. 그 사자가
무서워서 도망가요?”
“아니요! 안 무서워요. 화-악 대들어
싸워야지요!”

“보세요. 엄마는 사자하고도
싸울거래요. 여자는 사자도 안 무서워
한다니까요.”
회중은 가르르~, 연합집회라서
앞줄에 자리한 순서말은 교역자
들에게 나뵈기 위한 경고가
나갑니다.

“여기 앞줄에 계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귀여워요? 무서워요? 잘
들으셨지요? 우리 목사들이
이렇게 사자도 무섭지 않은 여자들
하고 살고 있다니까요. 연약한
여자 라구요? 엄마의 사랑은
목숨을 겁니다. 그 엄마들은 여자란
말입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살아가
합니다”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25번째 실력 — 사랑이
실력이다.

지난 5월 Happy mother's day
에 사위에게서 책 한권을
선물받았습니다. 이것 저것
짹짹대느라 변변한 줄업장 하나
없는 장모에게 사위는 가끔 Frank
H. Wu의 “Yellow”라던지 Paulo
coelho 의 “The Alchemist” 같은
좋은 책 소개를 잘 합니다 이번에는
“Tattoos on the heart” 였습니다.
저자 Gregory Boyle은 캐톨릭 사제로
끝없는 온정으로, 시젯말로 막장가는
소위 불량아들과의 울고
웃기는 시설 생활을 기록한 책
이었습니다. 불과 4페이지 정도되는
서문은 네번이나 읽었지요.

물론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읽다가 단어 하나에 걸리면 사전을
찾느라, 또 조금 진도가
나가다가도 페이지를 넘길때마다
오버랩되는 옛날 섬기던 은평천사원.

6.25 전쟁중 피난 대열에서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려, 노다지 반항으로
살던 소년들 생각에 읽었던 부분을
읽고 또 한번 더 읽고 하느라 책
받든지 한 달이나 되어 가는데 아직
채 반도 못 나갔습니다.

앞 날이 창창한 새파란 젊음에 멀쩡한
일등 MBA 학위를 갖고도 조석
끼니를 예측할 수 없는 고아원으로
뛰어들어 무참하게도 아내의 코를
납작하게 하던 남편의 실수(?) 에 못
볼 일이라도 본양 양갈지게 하이얀
밤을 지새웠던 일들이 휘터도 없이
붓물 터진듯 쏟아져 나오니 그냥
거기에 잡혀 시간이 흐르지 못하고
멈추어 서 버립니다.

상품이 못 되는 소썰, 상품이 못 되는
김장 배추 무청등을 구하러 마장동
소시장으로, 불광동 배추시장으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등록금
연기 신청 하느라 찾아 다니던
숭실고등학교 등 교무실 문턱이
아직도 생생 그대로 입니다.

명절때면 교회나 어떤 봉사 단체에서
떡을 해 가지고 와서 자기들 눈
앞에서 모두 먹는 모습을
보아야겠다고 해서 아이들은
어떤날엔 하루 9번씩 떡을 먹어
내느라 설사들을 하면서도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를
목청터져라 불렀었지...

성장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비타민을
먹여 보겠다고 제약사에 협조 편지를

보내면 가장 어려운
형편의 제약사들에게서 선뜻
기쁨으로 돕겠다는 답신을 받고 울컥
감격했었던 일등...

돌아보면 바보가 아니었으면 감당해
볼 수 없었던 은혜! 쑥맥같은
자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었던
것을! MBA 학위를 흠뻑 써 먹지
못 했을지라도 특별한 기도제목을
가지고 금식기도때 외에는 아직까지
한끼도 굶기신 적 없으신 산 증거들
입니다. 쑥맥같던 실수들은 오히려
내 삶에 BC 와 AD를 가름해 주는
분기점이 되어 축축한 애기들로
과분하고 훈훈한 노년을 살게 해
주는것 같습니다.

다시 또 기회가 있다면 남편의 엉뚱한
실수에 양탈하지 않는 바보되어,
바보라야 살 아 볼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것을 가진 자로다 “를
살아내리라.

뿐 아니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는 말씀이 주야로
함께 하시니 세상은 여전히
황당할 지라도 전갈지 아니하고
한결 느긋하게 품을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26번째 실력 추가.
—바보로 사는 것도 실력이다.



필자가 언급한 책 표지들 (편집부)

영어이야기 21

- He is a man of his words -

이상목

전자공학 은퇴 교수
아마추어무선사
(K7MOK)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 “word”는 낱말, 말, 의견등을 뜻하는데, 사용하는곳에 따라 뜻이 조금씩 다르지만 쉽게 문맥에 따라 그 뜻을 파악할수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1절). “He is a man of his words. 또는 She is a woman of her words.”(그(녀)는 신용이 있어 믿을수 있으며,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I was fumbling for the right word.”(적당한 말을 찾지못해 버벅거렸다). “fumble”은 분명찮게 이야기하라는 뜻도 있고, 미식축구나 야구에서(쉬운)공을 받지 못하고 떨어뜨리는 실수도 “fumble”, 더듬거리며 찾는것도 fumble을 사용하여, “He fumbled in his pocket for the keys.”(열쇠를 찾느라 주머니속을 뒤적거렸다).

“My mind went blanks, and I began to fumble for the words.”(마음이 짹 막혀 헛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You haven’t listened to a word I’ve said.”(너, 내가한말 한마디도 앓들었어). 한번 뻔은말은 주워담을수 없습니다. 말한마디로 천량빛도 갚을수있는 반면, 잘못된 말한마디로 오랜우정에 금이 가기도 하며, 유력인사가 선거후보나 나라의 공직에서 물러나기도 합니다. 말이 많은것을 나타낼때 “wordy”를 사용하여 “Your memo is too wordy – make it short and to the point.”(네가 적은 메모에 말이

너무많다. 간결하게 요점만 적어라). “words”는 노래가사(lyrics)를 뜻하기도 합니다. Opera의 대본을 “libretto”라고 하는데, 이탈리아로 “booklet”(조그마한 책자)의 뜻입니다. 여러책을 모아둔곳인 Library(도서관)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어원은 라틴어의 “liber”에서 나온말로 책(book)이란 뜻입니다. 스페인어로 책을 “libro”라 합니다. “word”를 사용한 예문을 더 들어보면, “So far there have been more words than action on the matter of childcare provision.”(지금까지 육아문제에 관해 행동보다는 갑론을박 의논만 난무했다). “The city’s provision for the elderly is barely adequate.”(시당국의 노인에 대한 대비정책은 충분치않다).

“elder”는 elder sister나 elder brother에서처럼 손위 누나, 형, 언니를 일컫는데, 명사로 쓰이면 손윗사람, 연장자, 교회의 장로를 뜻합니다. “elderly”는 형용사로 나이지긋한의 뜻으로 the를 붙여 “the elderly”는 나이지긋한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elder brother”는 “older brother”로 부를수도 있는데, 나이가 들은 또는 오래된의 뜻으로 “older”를 사용할수 있지만, “elder”는 사람한테만 사용할수 있으며, 가까운 식구의 형이나 누나 언니를 지칭할때에는 “older”보다 “elder”

를 사용합니다. Provision은 provide(준비하다)와 연관이 있는 단어로 어떤일에 준비하다, 예비하라는 뜻이 있어, 복수로 provisions는 쌓아놓은 필요한 양식이나 생필품을 뜻합니다.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말보다 행동이 훨씬낫다).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천마디의 말보다 한번 보는것이 더 낫다. 백번 듣는것이 한번 보는것보다 못하다 (백문이불여일견: 百聞而不如一見)). 사용되는 모든 말(word)을 vocabulary(어휘)라고 할수 있는데, “My Russian vocabulary is very limited.”(나의 러시아어 어휘력은 매우 한정되어있다). “By the age of two a child will have a vocabulary of about two hundred words.”(아기들은 두살때까지 약 200개의 말(단어)을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평소엔 언어습관이 좋은사람은 어휘력이 풍부하고, 그 어휘를 적재적소에 사용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생각은 말이라는 소리로 또는 표정으로 얼굴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You have my word. I won’t tell a soul.”(날 믿어. 아무한테도 얘기않할께). “soul”은 (영)혼, 정신, 마음의 뜻으로, 누가 세상을 떠났을때, “Let us hope her soul is now at peace.”(그녀의 영혼이 편히 지내길 우리모두 바랍니다). “poor soul”(불쌍한 사람). “If you can’t enjoy this music, you have no soul.”

(이음악을 즐기지 못한다면, 너는 제대로 정신이 박혀있는 사람이 아니다). 귀여운 어린이를 보고 “She’s a happy little soul.”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자기와 생의 목적이 같고, 같이 있으면 서로 안정되는 느낌을 주는 상대방이나 배우자를 “soul mate”라고 할수있습니다. “word”엔 언쟁이나 소식이란 뜻도 있어, “Both competitors had words after the game. (두팀은 경기후 언쟁에 들어갔다). “Words were exchanged and then someone threw a punch.” (언쟁이 오고간후 누군가가 주먹을 날렸다). “Has there been any word from Jake since he went to Chicago?” (시카고로 떠난후 Jake한테서 연락(소식) 없었니?) 물건을 살때나 집수리등을 할때 우리는 입소문을 듣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입소문은 “word of mouth”라 할수있습니다. “viva voce (바이버 보시 또는 비바 보체)”도 글자그대로의 뜻은 “with the living voice”로 말로하는(oral 또는 by word of mouth)의 뜻인데, Ph.D 과정의 하나인 필기시험(논술)이 아닌 구술시험(oral exam)을 뜻하고자 할때 viva voce exam 또는 간단히 viva exam이라고 합니다.

“Power”란 단어도 우리말로 해석하면 여러가지 뜻으로 사용되지만, 근본 뜻은 “힘”입니다. 얼마전에 소개된 “electric power”는 전력,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world power”는 세계강대국이 되겠고, “super power”는 초강대국, “economic power”는 경제력, “military power”는 군사력이 되겠습니다. “wind power”는 바람을 이용하여 터빈을 돌려 생산하는 전기를 뜻하며, 모터나 자동차엔진 힘의

단위에 “horse power”(마력)가 있습니다. 증기엔진(steam engine)이 처음 나왔을때, 얼마나 많은 말이 끌수있는 힘인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1마력의 정의는 550 파운드의 무게를 1초동안 1 ft 움직일수있는 힘으로 대략 746 W(와트) 입니다. 한마리의 말이 끄는 힘이 1 마력이 아닙니다. “Power”의 여러가지 예문을 보겠습니다. “I have no power over him – he does what he wants to.” (나에겐 그를 어떻게할 힘이 없다. 그는 자기가 하고자하는데로 하거든). “She has the power to charm any man she meets.” (그여잔 만나는 남자마다 그들을 끄는 매력이 있다). “How long has the Republican Party been in power?” (공화당은 얼마나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까?) “The army seized the power.” (군대가 권력을 거머쥐었다). “I’m afraid it’s not within my power.” (제가 할수있는 권한밖의 일이에요). “We lost power during the storm.” (폭풍이 지나가는동안 전기가 나갔다). “My mental powers aren’t as good as they used to be.” (내정신력은 예전같지않다). “My car doesn’t have enough power to tow a trailer.” (내차는 트레일러를 끌고갈만큼 힘이 세지않다). 어린이들 수학과제물에 “power”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2 to the fourth power is 16.” (2의 4승은 16 이다. $2^4 = 16$). “3 to the power of 4 is 81.” (3 의 4승은 81). 2승(제곱), 3승 (세제곱)은 “square”, “cube”를 사용합니다. “Four squared equals 16.” 또는 “The square of 4 is 16.” (4의 제곱은 16). “The cube of 2 is 8.” 또는 “Two cubed is 8.” (2의 세제곱은 8. $2^3 = 8$). 분수를 읽을때 우리는 분모(denominator)부터 읽어, 1/3 은 3분의 1로 읽지만,

영어로는 분자(numerator)부터 읽기 때문에 1 over 3 (one over three), 또는 “one third”로 읽습니다. “square”는 정사각형의 뜻도 있고, 이러한 모양으로 둘러싸인 시청앞광장, 뉴욕의 와싱턴광장 (Washington Square)처럼 광장이란 뜻도 있습니다. 방이나 집크기를 말할때 2500 square feet(sq. ft.) 등으로 표현하는데, 넓이는 두변을 곱하기 때문에 길이의 단위인 feet 도 두번 곱해지므로, 2승, 즉 제곱이 되므로 square feet (ft²)가 됩니다. “square”는 모난사람을 뜻하기도 하는데, “He is bit of square.” (그는 좀 고루한 사람이다.) 6면체는 부피를 나타내므로 3변을 곱해야 하므로 “cube”는 정6면체의 뜻인데, 이러한 모양을 한 각설탕이나 얼음조각도 cube입니다 (이를테면 ice cube). 요즈음의 사무실을 보면, 큰공간에 벽이나 커튼으로 칸막이를 한 여러개의 작은방으로 나뉘어져 있는것을 보는데, 6면체 모양을 하고있으므로 cubicle이라 합니다. 호텔의 방번호 318호실을 말할때 “Room Three Eighteen”으로 흔히 말하지만 수표에 \$318을 기재할때엔 “Three hundred eighteen”으로 적는데, “Three hundreds”처럼 복수를 사용하지 않으며, Three hundred와 eighteen사이에 and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123,700 (12만 3 천 7백)은 “One hundred and twenty three thousand, seven hundred”로 읽으면 됩니다. 우리가 수학시간에 배운 루트($\sqrt{\quad}$)는 square root(제곱근) 라고 합니다. 숫자의 group을 나타내는 말로는 dozen(12), score(20), century(100), grand or K (1,000) 등이 있습니다. Thank you.

선교

에베소(Ephesus), 사도 바울의 핵심 선교지

글: 유주손 선교사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그들의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이었다. 바벨탑을 짓고 스스로를 높이고자 했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놀랍게도 심판 이전의 축복이었다. 결국 역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흘러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는 것이 역사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꿈이다(이사야 49:6).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혈통적 유대인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의 역사는 모든 민족으로 강력하게 확장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초대교회를 일으키시면서 쉽게 바뀌지 않는 유대적 사고를 전환하시며 모든 민족에게 당신의 사역자들을 파송하셨다.

사도 바울은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고자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었다(사도행전 9:15). 그런 그가 세 차례의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이루어 낸 로마 세계의 부흥은 가히 유럽과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다고 평가된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로마서 11:25)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해에 대한 주옥같은 가르침은 그 복음 전파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화해’ 이것은 비단 하나님과 인간 사이뿐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중요한 주제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찢으셨고 그것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해를 이루셨음을 선포하고 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를 특별히 강조하고 설명한 서신서가 바로 에베소서, 즉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였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주님의 계시를 받은 후 소아시아 일



고대 3대 도서관 중 하나인 셀수스도서관 유적. 도서관은 파괴되었지만 다행히 전편은 원형 그대로 남아있어 당시의 화려했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곱 교회가 회람할 수 있도록 발송한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한다. 편지의 수신자로 제시된 소아시아 7대 교회 중 첫 번째로 편지를 받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이다.

‘욕망과 소망’이라는 의미의 에베소라는 이름을 가진 이 도시는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대표적인 항구도시였다. 한때 25만 명이라는 거대 인구가 살았던 이 도시는 소위 아시아의 머리, 또는 아시아의 어머니로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대표적인 항구였다. 그래서 운동 경기 시즌이 되면

이오니아 지역의 전 인구가 몰려들기도 했다.

에베소의 유적지를 걷다 보면 하얗고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장식된, 그 규모가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는 거대한 고대 도시의 모습을 보게 된다. 멀리서 바라본 이 유적은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한다. 아랍과 소아시아, 유럽 등지를 여행하며 로마제국 시대의 많은 유적지를 돌아보았지만, 에베소의 유적은 규모나 보존 상태 면에서 단연 으뜸이다.

도시로 들어가는 중앙로를 걸으며 도시의 전경을 바라보노라면 마치 2천 년 전 이 거리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저마다의 욕

망과 소망을 가지고 불나방처럼 뛰어다니던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일까.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역시 이 길을 걸으며 에베소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을 것이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들렀

던 이 도시를 위해 3차 전도 여행 때는 2년간 헌신적으로 사역했다.

길을 따라가면서 먼저 눈에 띄는 건축물은 고대 3대 도서관 중 하나인 셀수스 도서관이다. 비록 사람이 돌을 깎아서 집을 짓지만, 집은 그 지은 사람보다 더 오래 남아있다는 것이 새삼스럽다. 당시 1만 권 이상의 책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해지는 이 도서관은 에베소가 동서양 학문의 교류 및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이 도시에 학구적인 사람들도 많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인지 에베소 교

회는 바울에 이어 아볼로,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및 사도 요한이 사역하면서 매우 탄탄한 기독교 교리를 정리할 수 있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에베소 교회가 수고하며 섬기면서도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낸 교회라고 칭찬하신 것을 보면 소위 이단을 분별해 낼 수 있는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에 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 특히 성적인 문제와 우상숭배에 대해 경고하는데(에베소서 5:5), 이 도시의 특성상 꼭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에베소에서 가장 숭배받던 신이 아데미 여신이었기 때문이다. 이 여신에게 바친 성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할 정도로 거대한 신전이었다.

이 신전에는 수많은 남녀 사제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과정에서 매우 음란한 집단의식을 시행했다. 매춘도 합법이었던 것 같았던 당시 에베소의 셀수스 도서관 맞은편에는 상당한 규모의 매춘굴이 있었다. 도시 중심가에 그것도 세계 3대 도서관 바로 맞은편에 매춘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지만, 에베소의 당시 사회 분위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욕망과 소망이 소용돌이치는 이 도시에서 ‘영원과 거룩’을 말한다는 것은 대단한 도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에베소에서 영원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은 있었다.

중앙로를 따라 계속 걷다 보면 이 도시의 하이라이트와 마주치게 된다. 2천 년 전, 2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을 수용했던 대형 원형극장(사진)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까지도 형태가 매우 잘 보존된 이 극장은 커다란 부채꼴 형태의 계단식 객석을 갖추고 있다. 중심부에 있는 무대에서 마이크 없이도 관중석에 골고루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했다. 실제로 한 쪽 벽면에서 말하면 멀리 떨어진 반대쪽 벽



에베소 원형극장. 사도 바울이 모일 땐아 출회한 곳이다.

면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사도 바울이 아데미 신상을 파는 자들에게 모함받아 끌려갔던 곳이 바로 이곳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군중에 휩쓸려서 온 것도 모른 채 아데미가 위대하다고 외치고있었다(사도행전 19:32~34).

마지막으로 에베소 유적 중심지에서 다소 떨어진 곳이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곳을 빼놓을 수 없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머물렀던 곳을 기념하여 세운 교회가 그곳이다. 마리아가 머물렀던 집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바로 사도 요한 때문이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임종을 지킨 제자이다. 예수님께 직접 어머니를 부탁받은 요한은 그날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로도 계속 마리아를 모셨던 것으로 보이는 요한은 에베소 지역의 목회자로 왔을 때 그녀를 모셔왔을 것이다. 도시 안에 머물지 못했던 이유는 사람들로 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탁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고자 했는지 알 수 있다.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식사하고 예수님의 임종을 지킨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바라본 요한은 초대교회 당시 창궐하던 영지주의 이단에 대하여 매우 단호한 태도로 비판했다.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으로 경험했던 사도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신실한 아들이 되어 에베소까지 그

너를 모신 것이다. 에베소에 관한 글을 정리하면서 결국 도시 에베소는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곳에 넘쳤던 활기도 욕망도 소망도, 세상이 우리러보던 도서관도

1만 권의 책도, 불가사의하다고 칭송하던 신전도 심지어 로마도 사라졌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들 모두가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던 이방인 사도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이다. 거대한 신전에서 숭배받던 여신과 그의 도시는 사라졌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집에서 예배하며 떡을 찢던 성도들의 교회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남아있을 뿐 아니라 더욱 확장되어 로마를 넘어 유럽으로, 유럽을 넘어 아메리카로, 이제 극동 아시아를 지나 중앙아시아와 아랍을 향해 뻗어가고 있다.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도시 에베소! 욕망이 소용돌이치며 음란한 우상과 인간의 지식 자랑이 가득했던 에베소에도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구원의 길을 찾던 이들이 있었다. 주님은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에베소의 이름으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처럼 지금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영락의 딸인 한반도와 사랑하는 터키에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12~13)

전재허가 2022.1.27. 영락교회 만남지 편집부 (2022년 1월호)

기행문

솔로 여행 ~ 아이슬란드!



송은숙

대한관광여행사사장
World Express
Travel & Tour
Dallas TX



언제부터인가 꼭 하고 싶었던 솔로 여행... 코비드가 가져다준 한가한 시간을 틈내서 상품개발차 유럽 북극의 아이슬란드를 향해 가고 있다. 아이슬란드... 지난해 2월까지 국경이 닫히면서 발을 돌려야 했던 청정 지역 아이슬란드! 코비드의 영향으로 비록 많은 비즈니스 상가가 닫히고, 시간을 조정해 가며 운영하고 있었지만, 찾아온 관광객들의 마음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1년 3개월 장기간 갇혀 지냈던 관광객의 마음은 그냥 행복 했고 아주 만족하고 있었다.

미주에서의 출발은 시애틀, 뉴욕, 시카고, 미니애폴리스, 워싱턴을 통해서 갈 수 있으나 나는 뉴욕을 택했다. 뉴욕에서 출발해 6시간의 짧은 비행 시간은 지루하지 않고 책 한 권으로 마무리하며 도착할 수 있어 좋았다. 이른 아침에 도착한 나는 투어가이드를 기다렸지만, 섬사람들의 습관인지 시간관념에 약했고 드디어는 2시간을 기다린 끝에 택시로 이동하게 되었다. 공항에서부터 다운타운까지의 이동시간은 40분... 운전기사는 나에게 온 사방에 쌓여 거품처럼 밀려있는 화산분출의 검은 용암지대를 가리키며 800년이 된 지역이라 가리킨다, 먼발치에서는 검은 연기가 계속 피어나면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 기사는 지금 보이는 연기는 화산 분출이 되고 있다고 알려주며 공항 가까이 15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

는 그 유명한 블루라군의 온천으로 안내했다.

블루라군(Blue Lagoon)은 어떠한 곳인가?

화산 전체가 섬인 지열을 활용하여 땅에서 분출되어 끓어오르는 온수(평균 39c/102f)를 데워서 바닷물과 섞어 생산되고 48시간마다 전체 온천의 물을 바꾸는 형태로 신비로운 우윳빛의 푸른 온천수와 피부에 좋은 실리카, 미네랄이 풍부하여 건선 치료 효과가 있는 용수이자, 거대한 호수 형태로 만들어진 세계에서 손꼽는 10대 온천 중의 하나이다. 많은 관광객은 공항에서 바로 와서 온천을 또는 출발하기 전에 들려서 온천을 꼭 즐기고 있다. 싸늘한 추운 입김에 따듯한 물에 앉아 현지 산맥주 한잔을 서비스받으며 여행의 피로를 풀고 간다.



Blue Lagoon 온천

레이카비크(Reykjavik)

해안에 위치한 아이슬란드의 수도이자 인구12만3천명 거주하고 있는 최대도

시로서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중심지이다. 선대 바이킹의 후손으로 덴마크, 네덜란드, 아이슬란드의 이민개척자들에 의해서 발전해 왔으며 “증기가 피어오르는 만..” 이라 부르기도 한다. 18세기 이후부터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면서 1874년 처음으로 아이슬란드 헌법이 제정되었으며, 1918년에 레이카비크 자치구로 지정되면서 아이슬란드의 어업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세계 2차 대전 후 1994년에서야 덴마크로부터 독립국이 되었다. 또한 레이카비크는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로 작가 시온(Sjón), 안드리 S. 마그나손(Andri Snær Magnason) 등이 유명하고, 문화면에서도 부각을 띄고 있어서 각 아트페스티벌, 국제영화제(RIFF), 문화의 밤, 그리고 고품격 음식문화로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사면이 바다인 아이슬란드는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아 5월 초부터 8월까지 되는 여름과 백야에 볼거리가 넘쳐난다. 주말이면 각 선창가의 길은 춤과 노래로 가득 차고 파티를 즐기며, 화가들의 넘쳐나는 작품과, 손으로 만든 조각들과 인형 그리고 겨울내 뜨개질로 만들어진 모자, 스웨터, 스카프 등은 우리네들의 지갑을 열게 한다. 날마다 신선하고 풍부한 해산물로 만들어진 수프와 요리들은 저녁노을에 북적이는 관광객들의 긴 시간을 보내기에 아주 충분하다. 긴 파이프에 모자를 눌러쓰고 차한잔을 마시며 책을 읽는 사람들, 싸늘한 저녁노을과 동시에 아침 해돋이를 볼 수 있



다채로운 레이카비크시의 집 지붕

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도시 곳곳에 책과 음악 그리고 예술로 가득찬 낭만의 레이카비크 도시를 유네스코는 문학의 도시로 지정했다.

대부분 사람은 아이슬란드가 너무 추워서, 관광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염려한다. 사면이 바다, 빙하 그리고 화산 분출로 위험하지 않을까도 생각한다. 하지만 아이슬란드는 얼음의 나라, 빙하로 덮인 나라에서 유래되긴 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춥지는 않다. 아이슬란드는 위치상 북서쪽으로 바람이 거세고 찬 해양성 기후이지만, 아이슬란드 항구는 얼지 않을 만큼 따뜻한 북대서양의 해류가 흐르기 때문에 매우 높은 위도에 있어도 온화하다. 한겨울에도 영하 3C/36F, 한여름 성수기에는 13.3C/56F 정도여서 여름치고는 시원한 편이나 변화무쌍한 날씨로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할 수 있어서 방수복을 항상 준비해서 다녀야 한다.

피곤한 하루를 공항서 오는 길에 블루라군의 온천욕을 하고 나니 한결 몸이 가벼워진 듯해서 바닷가의 항구를 돌면서 저녁은, 유명한 가재 요리 수프(Lobster soup)와 샐러드 그리고 지열로 구워낸 호밀빵으로 첫 식사를 했다.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호밀빵 루그브뢰이드는 아이슬란드 전통 귀리 빵이다. 어두운 색

상(초콜릿 색)의 달콤한 맛이 나는 빵은 잉겔볼 속에 반죽을 담은 항아리를 넣고 잔디로 덮은 채 하룻밤을 보내 구워내는 전통 제조 방식은 옛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비법의 맛을 아이슬란드에서만 먹을 수 있다. 화산이 많은 이 지역에서는 가난과 추위에 자원이 부족했던 옛 선조들이 전기

와 펄감 대신 뜨거운 땅속의 열(지열)을 이용해서 개발해낸 지혜로운 방제법으로 생선요리 등과 곁들여 먹으면 제맛이 난다.

저녁노을이 문턱에 걸릴 때쯤 나는 가이드의 안내로 살아서 뿔어내는 화산투어를 가기로 했다. 레이카비크의 시내에서부터 45분 차로 이동, 구불구불한 도로는 정말 영문 도로표시라고는 하나 볼 수 없는 아이슬란드 어귀의 표기만 있을 뿐 어디인지조차 모르는 들판에 차를 주차하고 가파른 언덕길을 40분가량 걸었다. 온통 사방이 검은 흑과 돌, 라바가 넘쳐흘러 들이 되고 8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온 이 길은 매우 걷기가 험난했다. 반드시 발밑이 두껍고 무늬가 많이 파인 등산화를 신고 등반해야 넘어지지 않는다. 어느 노부부가 몇 걸음을 걸어오다가 차로 되돌아간다, 우리는 계속 1시간 반을 등반하면서, 위산에서 흘러내리는 라바(Lava, 용암)의 시뻘건 잔해들이 내려오며 쌓이는 불 속을 보고 감탄하면서 웬지 군밤 생각을 했다.

바람이 거세고 춥지만 라바의 열기는 매우 따뜻했고 잠시 온화한 불 옆에 앉아 구경도 하면서 우리 여러 나라 사람들의 수다와 감격, 표현의 자량을 하고 있었다. 유난히 바람이 거센 그날, 산 위에서 검은

연기가 연신 뿔어나오는 그곳을 가리키며 가이드는 정상에 오를 것인가를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했다. 당근 가야~~징~ 여기까지 오르기를 무릎과 가슴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냥 내려강~?..... 100%, 만장일치로 봉우리를 오르기 위해 우리 손과 손을 서로 잡고 짝을 맞추어 오르기를 1시간, 바로 눈 위에 있는 봉우리가 왜 이리 멀게 느껴지는지... 고진감래의 숙어를 되새기며 정상에 오르고 보니... 거대한 봉우리가 입을 벌린 채 시뻘건 불줄기를 토해내고 있었다.

Oh My God... 신이시여~ 위대하심에 놀라 감격해서 모두가 할 말을 잃고 앉아버렸다. 매 7분~10분마다 토해내는 분화구의 열기를 우리는 가슴에 담고 또 담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일어난 생각들을 하지않고 바람이 거센 악조건의 기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행은 7번의 분출을 끝으로 보고 내려오기로 했다. 오르기만 힘든 줄 알았더니 내림길 또한 힘들었다. 라바 잔해의 돌들로 깔려있어 사로잡은 손들을 놓치며 몇 번을 넘어지며 내려왔어야 했다. 고생 끝의 낙이라고? 가이드는 수고했다며 불같은 초콜릿이라는 초콜릿을 하나씩 나누어 주며 수고했다고 우리를 격려했다. 내 일생에 몇번이나 이런 분화구의 출혈을 눈앞에서 볼수 있을까? 저마다의 사람들은 아이슬란드에서 최고로 기억에 남는 투어라고 엄지를 세운다.

(다음호에 2편 계속)



Fagradalsfjall Volcano

Church News

교회 소식

연합감리교회
제직수련회 마칩

알버커키 연합감리 교회에서는 6월 26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제직 수련회를 교육부(부장: 최성원 권사) 주최로 마쳤다. 약 40명의 교우 여러분이 참가하여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수련회를 재 부활한 의미도 갖게 됐다. 수련회에서 다룬 주제와 강사는 아래와 같다.

- (1) UMC 교회조직과 지도자 역할 (이경화 장로)
- (2) 파밍톤 지역 인디언 선교사역 (전종범 선교사)
- (3) 속장 부서장 교육/UMC 교단현황 (김기천 목사)
- (4) UMC 교회안전수칙, 예산수립 (한승우 전도사)

부고 이복주 집사

알버커키 연합감리 교회에서 지난 4년간 신앙생활을 해 오셨던 이복주 집사님께서 5월 12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복주 집사님께서 호



흡곤란으로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던 중 신장(kidney)에 이상이 발견되어 혈액투석(dialysis)을 위한 수술도 받고 회복하던 중이셨는데 뜻밖에 부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유족이신 이현숙권사님과 따님 이지은 양, 손녀 미영학생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온 교우님들이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장례예배를 지난 5월 19일 Direct Funeral Services. (2919 4th Street NW Albuquerque) 에서 오후 3시 김기천 목사님의 주례로 유족과 속회의 여러 교우들이 함께한 가운데 고인의 유언에 따라 간소하게 드렸습니다.

이명길 목사
캘리포니아로 이사

알버커키 한인 교회를 담임해온 이명길 목사가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사는 두 따님 곁으로 이사를 하시게 되어 지난 5월 23일 뉴멕시코 목회자 모임에



(사진: 뉴멕시코 목회자와 가족 모임
오른쪽에서 두번째: 이명길 목사 왼쪽에서 세번째: 허명순 사모)

서 송별 식사를 Buffet King 식당에서 갖고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미주 장로교 리오 그란데 노회에 속하는 알버커키 한인 교회에서는 코로나 질병으로 주일 예배를 대면 예배 대신 인터넷 예배로 드려왔었고 그동안 “새 이스라엘” 신앙 잡지도 발간해 왔었다. 이명길 목사는 영상 인터넷 예배를 산호세에서도 계속 올려서 알버커키 한인 교회 사역을 계속한다고 전해왔다. 교회 연락처는 지금까지의 교회 주소 대신 우체국 사서함을 사용하며 전준영 전도사님이 이를 관할하신다. 교회안내 난에 상세한 내용이 업데이트되어있다.

이태길 원로목사
동부로 이사

알버커키연합 감리교회에서 교회생활을 해오신 이태길 원로 목사님과 김성숙사모님 내외분께서는 동부 지역으로 이사 하시게 되어 6월19일 이곳에서의 마지막 주일예배를 드리게 되어 예배시간중에 작별인사 말씀이 있었다. 목사님 내외가 소속되어 있던 안드레 속회에서는 주일 오후에 이태길목사의 인도로 송별 속회를 교회에서 가졌고 석별의 정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공군 소령으로 미 국방부 펜타곤에서 근무중인 이성빈 아드님 집에 손자 돌보는 일을 돕기위해 이사를 가시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아마도 버지니아로 이사 간 뒤에는 날씨좋은 뉴멕시코 생각을 많이 하게 될것 같다고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다.

이태길 원로 목사는 이곳을 떠난뒤에 뉴멕시코를 생각할때 아마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준비했던 2017년 크리스마스 축하 음악회, ‘은혜의 강물 따라’ 공연한 일이 가장 보람된 과거로 기억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다. 당시 이태길 원로 목사는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봉사하셨고 ‘은혜의 강물 따라’ 음악회는 교회에서 공연한 음악회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성탄 축하 음악회의 하나로 기억되고 있다.

NM Churches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김민순 목사 (505)975-0322
 주일예배 시간: 오후 1:00 pm (예배 후 점심식사 교제)
 어린이주일학교 시간: 오후 1:00 pm
 토요새벽예배 시간: 7:00 a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교회 웹사이트: www.galileeabq.com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주일예배 시간: 10:30 am
 새벽예배및 기도회: 5:30am (mon-sat)
 금요일예배및 기도회: 7:30pm-10pm
 주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라스 쿠르세스 장로교회 (Las Cruces)

유평산 목사 (915)329-3451
 주일예배 시간: 10:30am
 주소: 200 E. Boutz rd, Las Cruces, NM 88005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김석훈 목사 (505)699-4775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 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9:45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PreK/K-3/4-7) 10:00 am (Sunday)
 중/고등부 / 주일학교 예배 11:00 (Sunday)
 새벽기도회 6:00 am (Tue-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온라인예배방영: www.youtube.com/KUMC_Online
 페이스북: www.facebook.com/kumcabq

알버커키한인교회 (Albuquerque Korean Presbyterian Church)

이명길목사 (505)730-3614(hand)
 전도사: 전춘영(Esther Y. Pak)(505)298-0367
 인터넷 주일예배: 주일 오후 3시 (태평양 시간:2시)
 새벽 예배: 매일 오전 7시(편리한 시간 녹음파일로 참여)
 교회 홈페이지: www.abqkc.org
 새이스라엘 월간 홈페이지: www.abqnim.com
 교회 연락 주소: ABQ Korean Church; PO Box 50476
 Albuquerque, NM 87181-0476
 이메일: myungkil_lee@hotmail.com (이명길목사)
abqkoreanchurch@gmail.com (교회)
 (예배처소는 없으며 온라인예배로 대체되었음)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사목회장:김지수 전례부장:장경림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 87110
 소공동체(화,오전), 성령기도회(수,저녁)
 기도회: (코로나로 인해 재 구성 중)
 장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St. Frances Hall
 Contact : (505)-503-9846
 7월부터는 치마요의 이병권신부님께서 매달 오실예정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클로비스 한인 교회 (Clovis)

이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주일예배: 11:45pm
 수요일모임 11:30am

아침기도회: 7:00am(월, 화, 목, 금)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거무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변호사 Law Firm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NAPA Family Dental Dr. 윤자정 10820 Comanche Rd, NE Albuquerque, NM 87111 ph)505-323-7700
건축/페인트 Painting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201 Third St. NW Suite 1300 Albuquerque NM 87102 (505)888-1335 jroh@cuddymccarthy.com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	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	태권도 TaeKwonDo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부동산 Realtors 김영신 Yong Shin Kim: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Dynamic taekwondo 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 (505) 271-2000
단요가 Dahn Yoga	세탁소 Dry Cleaners	Korean BBQ & Sushi 4214 Central SE ABQ (505-797-8000)	자동차정비 Auto Repair	한의원 Acupuncture
알버커키505-797-2211 커튼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튼505-286-3535 www.dahnyoga.com	식당 Restarant A-1 한식 Cafe 6207 Montgomery Blvd. NE (505)275-9021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K Style Kitchen 6001 Winter Haven rd.G NW, ABQ NM (505-503-8699)	The Garage 자동차 정비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마이클 조 웹사이트:thegaragenm.com	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리커스토어 Liquors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주택용자 Loan Officer	Dr. James D Park: (박달규) 6501 Eagle Rock Ave, NE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Casa Liquor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 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 Kelly Liquors #5 6124 4th St NW (505) 828-1133 Kelly Liquors #7 1418 Juan Tabo NE (505)292-4520 Kelly Liquors #8 11816 Central SE (505) 299-3366 Kelly Liquors #9 1903 Coors SW (505) 873-4477 Kelly Liquors #10 4312 Coors SW (505) 877-2777 Kelly Liquors #14 6300 San Mateo Blvd NE Suite R (505) 797-9966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Laundromate Ste.A ABQ (505)243-8089 Asian Pear 8101 San Pedro Dr.NE, D ABQ (505)766-9405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Tamashi Japanese 6400 Holly Ave. NE ABQ NM87113 (505-717-2457) 식품점 Korean Grocery A-1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NE ABQ (505-275- 9021) Arirang Oriental Marke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중재서비스 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치과 Dental Clinic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화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호텔 Hotel The Ambassador Inn (조영자) 1520 Candelaria NE ABQ NM 87107 505-345-2547 회계사 CPA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CUDDY & McCARTHY, LLP

Attorneys at Law

우리 로펌은 (<http://cuddymccarthy.com>)

1917년에 근간을 둔

다양한 분야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종합법률사무소로서 산타페와
알버커키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노영준(Jun Roh)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201 Third St., NW Suite 1300
Albuquerque, NM 87102
(505) 888-1335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라스베가스 Las Vegas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산타페 Santa Fe	Kohnami Japanese Cuisine 313 S. Guadalupe St. Santa Fe (505-470-1561)Hee Joo	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
치과 Dentist	미장원 Hair Salon	손톱미용 Nails	리커스토어 Liquors	식품 Korean Grocery
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	차진주 헤어(Peal's Place) 800 Trinity #E Los Alamos (505)412-5294	Tiffany Nails(윤성희) 410 Old Santa Fe Trl. #E (505)982-6214	Kelly/ De Arco Liquor (@Solana Center) 915 W. Alameda St. Santa Fe, NM 87501 (505) 954-1399	K's Oriental Food Store 921 Mai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리오란초 Rio Rancho	변호사 Law Firm	Kelly/Liquor Barn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960	치과 Dentist
공인회계사 ACC	리커스토어 Liquors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	Kelly Liquor 4300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206	KidsKare PC Family Dentists 600 Texas St.C Clovis NM88101 치과의사:박요셉-Sherry 부부 (575)-762-1900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 5800) (Fax 575-523-7700)	로스루나스/벨렌/ 버나리요/보스키팜 Bernalillo/Belen/Bosque Farms'Los Lunas	식당 Restaurant	클로비스 Clovis	화명톤 Farmington
카페/ 선물 Cafe/Gift	리커스토어 Liquors	박성희/신숙희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식당 Restaurant	상점 Store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 0098)	Kelly Liquors 408 Hwy 550W, Bernalillo, NM87004 (505) 867-5838		Bokka 레스토랑(한식) (박창문, 박미란) 1708 Prince St. Clovis, NM 88101 (575)-763-2262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병원 Clinic	Kelly Liquors 300 N Main st. Belen, NM87002 (505) 864-2242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Kelly Liquors 395 Bosque Farms Blvd. Bosque Farms, NM87002 (505) 916-5656			
리커스토어 Liquors	치과 Dental Clinic			
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22-4646	Los Lunas Smiles Dr.윤자정219 Courthouse rd. Los Lunas NM87031 (505-865-4341)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New Mexico
2022년 7/8월호 발행일 : 2022. 7. 5.
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부장 :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

Reader's Letter to Editor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Letter to Editor 코너를 신설합니다. 100자 이내의 글로 광야의소리 편집부에 나누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시면 아래주소로 보내주세요.

Email 주소:voiceofnm@gmail.com

우크라이나 동포에 게 성금 전달

(광야의 소리 22년 5/6월호)

● \$1,300이라는 성금을 보내는 분들의 소중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요즘 팬데믹, 인플레이션 등의 여파로 많이 힘든 시기인데요... 소중한 이야기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aesoon P (Canada)
(폐북댓글17개중 하나, '좋아요'는 101명)

감사합니다!!!

●광야의 소리에 한인들의 많은 참여가 있길, 그리고 힘을 줄수있는 귀한 매개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R. Kim (N.J) 22.6.21

CVI Laser 한유학 박사를 기억하며

(광야의 소리 21년 9/10월호)

●좋은 정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읽고, 훌륭하신 한국인들 한 분 더 알게되어, 참 좋습니다.

Maria R(TB, FL)
●자랑스런 한국인을 이렇게 또 알게되었네요. 우리 아들들에게 또 자랑해야지.ㅋ

류HN (BB, PA)
●우리 동네인가? ㅎㅎ 와우 B Lee

(이 기사를 올린 폐북을 통해서 46개의 댓글이 올라왔고 224명이 '좋아요'를 클릭했습니다)

은퇴계획

● 많은 분들이 은퇴 계획을 세우실때, 의료비용에 대한 부분은 꼼꼼하게 준비를 앞 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내가 아프면 미국 정부에서 모든 진료료 무상 지원 해주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중병이나 질병을 나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은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고, 나의 상황에 맞게 준비와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Han Ju Lee
(다음 페이지 광고참조)

광고를 통한 후원에 관해서는 voiceofnm@gmail.com으로 또는
(505)275-9021(광고담당:신옥주) 로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1 ORIENTAL MARKET
日本の食品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ebsite: www.a1orientalmarket.com
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
몽고메리/산페드로 코너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The Garage AUTO REPAIR
30년 경험의 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2년 연속 앨버커키저널 독자가 선정한 최고의 자동차 정비업소
문의사항(505)352-5152
영업시간: M-F 7:00am-6:00pm (토 일 휴무)
웹사이트: <http://thegaragenm.com>
주소: 6441 Western Trail NW Albuquerque, NM 87120

생명보험 : 사랑하는 가정경제를 지키는 버팀목
롱텀케어 : 양로병원과 간병을 지원하는 플랜
IRA : 안전과 수익을 함께 보장하는 지수형이자


HAN JU LEE (financial professional)
CA Lic.#0K41143 / NM Lic.#17684619
213.321.8787
carlitos3840@gmail.com

HANMI
KOREAN-CHINESE FUSION
Business Hours
Wed - Mon 11am ~ 3pm / 4:30pm ~ 9pm
Tuesday Closed
2120 Juan Tabo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Tel: (505) 717-1287

R1 NEW MEXICO
THE FUTURE OF REAL ESTATE


김영신/부동산중개인
Yong Shin Kim
505.321.7695
yongshinkim001@gmail.com
www.R1newmexico.com
505.883.9400